

제4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 기 지상

 우
 리
 의
 성
 장
 이

 따
 뜻
 한
 세
 상
 을

 만
 들
 어
 갑
 니
 다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보다 새로운 사회, 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아산(峨山) 정주영

## 비 전 ┃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비영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교육 컨텐츠 개발과 공유를 통해 비영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기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교재 및 컨텐츠 공유를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4기 발자취



면접 심사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진행



해외방문연구조사



A S A N FRONTIER ACADEMY



제4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기집

## 고맙고, 감사합니다



강두진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

### 회상

어느덧 6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이전의 내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본다. 나는 사회연대은행,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하여 비영리 분야에서 15년 가까이 종사 중인 실무자이다. 경영진과 젊은 실무자 사이에서 소위 '낀세대'로 '일과 사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에 아카데미 과정을 접하게 되었다. 조직의 중간관리자의 입장에서 6개월의 긴 교육과정을 선뜻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만만치 않은 과정임을 익히 들어왔기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 왜 이렇게 친절하지?

성우를 능가하는 목소리로 4기 입학식 진행을 맡아주었던 실무자, 정진홍 전 이사장님의 특강, 조편성을 위한 게임, 매주 고민의 흔적이 살아있는 식사메뉴와 간식 등 아카데미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디테일이 살아있는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혼신의 분리수거에 도움주신 최윤석 인턴님. '4기 29명 프론티어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고 일정을 공지해주신 강혜진 매니저님, 조용한 미소로 4기의 우산이 되어주신 이승복 팀장님의 호의와 환한 미소가 아카데미의 진정성에 빛을 더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불편하지만, 다이나믹!

어느 비영리 활동가 워크샵에서 진행한 도형심리검사를 실시하였더니, 90%가 넘는 사람이 동그라미형으로 관계중심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나 또한 일의 중심에 늘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컸다. 캡스톤 과정을 통해 접한 심리적 압박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신선한 충격이었다. 매회 토론에서 일어나는 다이나믹스를 직면하는 과정은 인식하지 못했던 소극적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 애써 외면하고 회피했던 순간을 직면하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앞으로 나의 비영리 인생의 여정에 좋은 지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6개월간의 교육기간 동안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사회연대은행 식구들과 비영리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4기 동기들, 순발력의 한계로 한 조가 되어 6개월간의 긴 여정을 함께 만들어준 소중한 조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고희윤 징검다리 주간보호센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4기에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로도 나에게는 참 버거운 시간이었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아니 할 수 있을까?'라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는 믿음과 응원이 필요했다.

짧지 않은 시간, 누구에게 알아봐달라고 시작한 것도 아닌 이 길을 10년 넘게 묵묵히 걸어왔다. 돌아 보면 아득하고 앞을 보면 희미한 그 길을 다시 걸어가기 위해 잠시 앉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다. 배운다는 것이 참 좋았고, 전혀 모르던 사람들과 모여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어 좋았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을 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나에게 동기들은 늘 미소로 먼저 다가와 주었고, 그들에게 받는 따뜻한 기운이 너무나 좋았다. 입학식부터 해외방문연구조사까지 교육기간 동안 따뜻한 배려와 존중을 받으며 교육에 참여했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니었다. 특히, 용어부터 낯설었던 캡스톤 수업. 교육을 받는 내내 '일, 사람, 그리고 일과 사람'이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캡스톤 수업은 정답도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 하지만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제 적용도 해보았으니, 앞으로 현장에서 풀어가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는 또 흔들리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흔들림은 전과는 조금 다른 흔들림일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방향을 잃지 않고 다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니까.

함께 나누고픈 시를 적어본다. 곧 예쁜 꽃들이 피어날텐데, 흔들리더라도 피어나는 꽃처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4기 동기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쁘게 피어나면 좋겠다.

### 〈흔들리며 피는 꽃〉 -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새로운 피를 수혈받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김금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비영리단체 생활 15년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소양의 함양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패턴을 습득하는 것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갔다. 그리고 그즈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접하게 되었다.

안식년 기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내 예상보다도 더 험난한 교육이었지만, 참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느끼게 해주었다.

아카데미 교육은 무엇보다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아카데미 수업을 통해 스스로 정신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배운 내용을 단체 활동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안식년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하면서 아카데미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배운 것을 적용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차라리 아카데미 교육에서 배워왔던 이상적인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기 싫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 내용이 언젠가 유용하게 사용되리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환경과 영역에서 활동했던 비영리 활동가들과 협력했던 시간은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언제 이런 경험을,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얻은 소중한 지식과 기억들은 내가 비영리 리더로서 활동하는 현장에서 오래 묵은 빚처럼 두고두고 갚아 나갈 것이다.





# 좀 더 멀리, 넓게,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김수연 한국소비자연맹

어쩌면 그냥 스쳐갈 수도 있었던 메일 하나, '제4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모집 공고'. 마침 비영리 영역에 근무한 지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은 지치고 틀에 박힌 생활에 지겨워졌을 때였다. 1차 서류 지원부터 면접까지 약 3개월간의 전형을 거치면서 '입사 시험도 이렇게 어렵진 않겠다'고 농담처럼 푸념도 했었다. 그러나 그 선발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졌다.

아카데미 교육은 쉽지 않았다. 매주 2회의 강의, 과제, 그리고 캡스톤 프로젝트까지. 빡빡한 과정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바쁜 연말에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매번 했던 것 같다. 팽팽한 긴장감들 때문일까, 아직까지도 교육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교수님의 알찬 교육부터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캡스톤 프로젝트와 해외방문연구조사 까지 정규 대학원 과정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비영리 기관 중간관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강점이자 장점은 무엇보다 '사람'이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기들, 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기 전 가장 큰 고민은 '단순함'과 '편협함'이었다. 근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업무 범위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소비'나 '소비자단체'에 한정되다 보니 점차 사고가 편협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고 또한 너무 단순해져 간다는 고민이 있었다.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늘 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분야와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 같다.

아카데미를 수료하게 된 지금, 내가 전략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아카데미 지원서에 작성했던 나의 다짐을 지켜나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교육을 위해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해주시고 배려해주신 아산나눔재단 운영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너무 큰 배움을 얻었다. 앞으로도 더 멀리, 넓게,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배우고 노력할 것이다.



## 또 다른 방향의 시작



김진아 하트하트재단

### 기다림

제4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15년,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앞만보고 달려왔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급변하는 환경에서 주어진 하루 하루를 급급하게 지내왔다. 이런 내 삶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최종합격 소식은 새로운 기다림과 설렘이었다.

### 불편함과 비움

새로운 기다림과 설렘은 잠시뿐, 아카데미는 2박 3일의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을 시작으로 모듈별로 가득찬 수업일정과 과제에 지루함도 여유로움도 느낄 시간조차 없는 6개월의 과정이었다. 매주 일요일 자정까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캡스톤 리플렉션 메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캡스톤 수업과 과제는 나에게 안 쓰던 근육을 쓰게 하는 불편함과 아픔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튼튼한 근육이되었다. 그리고 그 근육으로 나는 조직과 삶 속에서 어떤 패턴을 가진 사람인지, 조직과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협업하는지 늘 성찰하고 분석하게 되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시간, 내 안에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었다.



#### 그리고

6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면 조직의 가치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 습관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혼자 하려고 했던 내 습관이 이제는 '함께'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다. 아직은 좋은 리더, 중간관리자가되기 위해서는 부족하고 나아갈 방향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 해 나아갈 것이다. 아카데미 6개월 과정이 끝이 아니라 조직의 리더이자 팔로워로서 나의 삶을 혁신하고, 사회복지사로서제2의 시작을 기대해 본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었던 4기 동기들과 각자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준 우리 1조 가치봄 팀원들과 함께 했기에 즐거운 추억이되었다. 또한, 6개월의 이 모든 과정 동안 애써주신 아산나눔재단 운영진과특히 제2의 사회복지사로서 나에게 또 다른 시작을 제시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 시작하고 마치는 내 안의 성찰



김창희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지난 9월, 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라는 6개월간의 도전에 겁없이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도전이 필요한 과정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밖의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교류하고 싶은 욕심으로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사와 엄마라는 두 가지 역할에 충실했던 나는, 우물 밖의 세상을 접하고자 뛰어든 시간 속에서 자신과 다섯 가지 약속을 하였다. 개근하기,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 수행하기, 스마트한 인생으로 성장하기, 세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나를 찾기, 과정 중에 추천하는 도서 80% 이상 읽기. 이렇게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면서 결석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과제 수행을 못한 적도 있었고, 추천하는 도서도 80% 이상 읽지 못했다. 하지만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자연스럽게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시작했을 때의 마음과 달리 아카데미는 어느 하나 녹록하지 않았다. 소속기관에서의 업무와 캡스톤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병행해야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크고 작은 기관의 행사와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마다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향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일간의 해외연구조사 역시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으로 나를 위해 온전히 가져 본 시간이었다. 이렇게 아케데미 과정은 미안함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아카데미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기회에 충실하고, 좋은 선배로서의 길잡이가 되고 싶었던 내 욕심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원들과 함께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를 통해 캡스톤 프로젝트와 해외연구조사에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무한 긍정에너지를 주는 유니킴 조원들과의 애정 어린 시간 속에서 나의 패턴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6개월 과정 내내 많이 행복했다. 이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아쉽고 허전할 것 같다. 중년에 치른 성년과정으로 나를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감사함을 전한다.



## 세상의 변화는 나의 변화로부터



류승남 강남시니어플라자

"나이를 먹으면, 그것도 일흔이 넘으면, 나는 내가 신선(神仙)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온갖 욕심도 없어지고, 이런저런 가슴앓이도 사라지고, 남모르게 품곤 했던 미움도 다 가실 줄 알았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정진홍 전 이사장님의 '노년에 인생의 길을 묻다'라는 책 서문에 쓰신 글이다. 책 출간 기념식 때 먼발치에서 뵙고 약 6년 만에 다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4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뵙게 되었다. 그때 난 30대 남자로서 성숙하게 나이 든 내 모습을 상상하였는데, 이젠 40대 중반이 되어 그때 내가 생각했던 나이듦의 과정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되었다.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다소 불안한 출발이었다. 40대의 중반이되어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살아왔나하는 자책, 방황과 걱정이 겹쳐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니감회가 새롭기만 하다.

이번 아카데미 교육은 나에게 커다란 위기이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갈 좋은 기회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처음 접해본 캡스톤 수업과 이를 통한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 과정이었다. 낯선 수업 방식, 잘 알지 못하는 주제를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동참하게 된 팀 프로젝트…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창한 프로젝트는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나를 가장 어렵고 힘들게 했던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어쨌든 세상의 변화는 결국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간단한 이치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해준 소중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전략수업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략'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리하지 못한채





추천도서와 자료들을 읽는데 급급하였지만, 기관의 전략회의에서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 유용한 강의였다.

그리고 재치와 유머가 가득한 리더십 교육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구현이며 결국 리더십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재무·회계 교육은 기존의 재무, 회계 지식에 더하여 이제는 비영리 분야에서도 복식회계가 더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환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의미있는 교육이 되었다. 이외에도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사회혁신 수업 등을 통해 관련 지식과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카데미 교육과정의 백미는 바로 해외방문연구조사가 아닐까 싶다. 독일 베를린의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고 지역을 탐방하면서 나의 무지를 깨고 새로운 배움과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팀원들과도 서로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평소 별의미 없이 바라보던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가 되었다고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교육은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떤지, 또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자극을 주었다.



## 속도는 방향을 이기지 못한다



박경호 동안복지재단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상황에 대해 갖는 두 가지 감정은 호기심과 불편함일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4기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고 나는 이 교육과정은 다른 교육과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기대와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주는 어색함이나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불편함을 차치하고 과감한 도전으로 나를 이끌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받으면서 '일과 사람'을 통해 맞닥트리게 된 것은 미처 몰랐던 나와의 만남이었다. 비단 캡스톤 과정뿐만 아니라 면접부터 해외방문연구조사에 이르기까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모든 여정은 나로 하여금 낯선 나와 직면하게 해주었고,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이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 매 순간 고민하고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기회였다.

이봉주 원장님의 3기 수료식 격려 말씀 중 '비영리 분야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열정을 지켜나갈 것', '두 발은 현장에 두고 시야는 전 지구를 향할 것', 그리고 '혁신적 사고를 키울 것' 이렇게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두었었다. 그리고 4기 과정을 수료하기에 앞서 수기를 적고 있는 지금의 내가 '과연 이봉주 원장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은 '균형감각', '집중', '한 번에 한 발짝씩만 내딛기' 세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고 정진홍 전 아산나눔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외줄타기 하는 사람은 외줄에만 집중하면 몇 센티미터도 안 되는 외줄이 큰 대로처럼 넓게 보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잊히지 않았다. 영화 '하늘을 걷는 남자'에 나오는 주인공이 세계무역센터 두 빌딩 사이를 외줄타기로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정말 그렇구나!' 하며 무릎을 쳤다.

지금까지 비영리 분야에서 17년이 넘는 길을 걸어오면서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왔다고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 외줄타기와도 같은 실무현장에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집중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한 번에 한 발짝씩만 내딛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아카데미 전 과정에 걸쳐 왜 혁신적인 사고를 키워야 하고, 왜 혁신적으로 사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 순간 성찰해야 했다. 혁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관습대로 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잘 읽어가며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동기들과의 만남은 수업과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가 되었고,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실무와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만큼 몸이 안 따라준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며 배려해준 4기 동기들과 항상 웃으며 맞아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신 아산나눔재단 운영진의 수고는 언제나 감동적이었다. 무엇보다 아낌없는 열정으로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다르게 동문회와 동문활동이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 과정을 마친 후에도 사람과 사람이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연구했던 프로젝트가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단체로 이양하거나 실천 가능 여부에 따라 수강생들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 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교육목적에 부합되고자 한다면 과정의 수료는 수업의 종료일 뿐, 이제 진짜 공부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내가 늘 마음에 두는 "속도는 방향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점검하고 나를 살펴봄에 있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오래 지속하고 발전하기를 응원한다.





### 상황을 품는 능력



박선례 통일미디어

아카데미를 신청할 즈음, 고민이 하나 있었다. 직위가 높아지며 부서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이 찾아왔다. 다툼과 논쟁이 없는 조직은 없겠지만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상 가급적 마찰을 피해왔던 나로서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몰라 어려움을 느꼈다. 그래서인지 아카데미 캡스톤 과정 중에 접한 '상황을 품는 능력'이란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상황을 품는 능력. 특히 '품는다'는 표현이 많은 생각을 들게 했다. 품는다는 건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상황을 그저 관찰하는 것,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 일의 해결에만 몰두하는 것, 이건 품는 게 아니다. '품는다'는 것은 주위 상황과 상관없이 늘 상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것, 여러 가지 능력을 겸비해야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상황전체를 위에서 바라보며 전체적인 판단과 동시에 상황 속에 들어가 현장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과 사람 모두를 제대로 읽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성격과 성품, 능력에 따라 품을 수 있는 폭과 깊이가 가늠되는 참으로 어려운 능력이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되었다.

20대 젊은 시절에는 '헌신', '희생'이란 말을 아름답게 여겼다. 사회변화를 꿈꾸는 활동가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나의 행복과 보람이 빠진 희생과 헌신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매년 일을 하면 할수록 숭고한 자세 이외에도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꿈에 다가갈 수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였나. 'NGO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모집 공고를 보는 순간, 도전하고 싶은 욕심에 가슴이 뛰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서류부터 면접까지 그 과정도 어려웠지만, 전체 과정을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그것도 저녁에만 공부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나 싶었다. 하지만 각종 회의와 미팅, 기획서와 보고서 작성 등 업무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열심히 하겠다'는 초심을 잃고, 과제는커녕 수업시간 맞추는 것도 놓칠 때가 많았다.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는 직원들이 새삼 대단해 보였다.

또 다른 어려움은 캡스톤 프로젝트였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오랜시간 종사해 온 전문가들과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다. 쓰는 단어와 표현, 생각하는 방식,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보니 서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시간이 걸렸고, 6개월 안에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프로젝트 자체가 또 다른 수업이며 훈련의 과정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고 일에만 몰두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어렵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 오늘이 왔다. 돌아보면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언제 어디서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 많은 가르침과 함께 순간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신 각 모듈 교수님들과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기고 살펴주신 운영진에게 너무 감사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로서의 고민을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다. 6개월만에 훌륭한 리더가 된다는 건 꿈같은 일이다. 다만 내가 얻은 건, 무엇을 고민하고,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지,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우선 나 스스로를 제대로 돌아보게 된 점이다. 그렇게 나는 아산을 지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한발 한발 걸어 들어가고 있다.



## 친구가 되어 길을 떠나다



박용선 프렌드아시아

NGO에 첫발을 내딛을 때는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 변화에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NGO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로부터 어느덧 20 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도 사회변화의 중심에 NGO의 역할이 유효한가?'의 물음이 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어느 때부터인가 기술혁신은 가히 혁명이라고 명명될 만큼 우리 일상 문화와 생활 태도, 그리고 사회를 바꿔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NGO활동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점차적으로 사회 변화의 중심부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듯 하였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기술과 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기 시작할 즈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나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아카데미 교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거나, 신세계의 기술 발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업이 거듭될수록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는 내용 하나하나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었다.





특히나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캡스톤 수업, 전략 수업 그리고 리더십 수업 등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는 강의였다. 특히 구글 캠퍼스와 마루180에서 진행된 수업들은 평상시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였으며, 나의 갈증을 어느정도 해결해 주는 청량제 같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4기 동기들과의 6개월의 시간은 지친 일상에서 다시금 생기를 불러 일으키는 촉매제였다. 동기들이 수업시간에 보여줬던 진지한 수업 태도와 하나라도 더 얻고자 하는 초롱초롱한 눈빛들은 나의 태도와 삶을 반추해보는 기회이기도 했다. 함께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던 시간들은 어느덧 소중한 추억으로 내 가슴 한 편에 자리잡게 되었다. 도시락을 나누고 삶을 나눴던 시간들은 시원한 청량제였다. 이런 소중한 만남은 내가 살아갈 날들의 새로운 워동력이 될 소중한 인연인 것이었다.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해외연구조사의 시간도 끝났다. 사람과의 스치는 인연이 찰나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 찰나를 끈끈한 인연으로 맺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듯 하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우리 사회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아카데미의 동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NGO의 길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걸어갈때 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끝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은 헌신과 수고를 해주신 운영진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명강의로 채워주신 모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더욱 많은 동문들을 배출하여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를 양성하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길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친구가 되길 바란다.



### 챙김의 리더십을 배우다



박윤경 한국실명예방재단

지난해 9월 10일부터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긴장된 6개월을 보낸 것 같다. 어쩌면 20여년전 대학원 시절보다도 더 설레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난 29명의 교육생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의 하나였다. 비영리 분야에서는 5년을 조금 넘겼을 뿐이어서 나보다 훨씬 젊지만 비영리기관에서의 경험이 많은 동료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마도 좀 더 배우라고 뽑아주신 거 같았는데 세월이 세월인지라 더 이상 예전처럼 스마트한 내가 아님을 수업시간마다 확인하게 될 뿐이었다.

하지만 늘 톡톡 튀고, 참신한 생각들을 서슴없이 주고 받는 젊은 동기들 틈에서 내가 그동안 비영리기관의 업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내가 여기서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할 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볼 수 있는, 다시 없을 시간들이었다. 경험도 많고 젊고 발랄한 동료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상큼한 비타민과도 같았고, 수업을 마치고 나면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인간과 조직에 대해, 무엇보다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었다.

유유히 흘러가는 북한강을 내려다보며 모처럼 첫만남의 설렘을 즐겼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자칫 시작의 설렘이 잊혀지기 전에 우리의 자세를 다시 다잡을 수 있게 해주었던 중간 워크샵, 그리고 늘 즐거운 몰입을 하게 했던 캡스톤 수업을 비롯한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등의 수업, 연말에 있었던 동문 포럼까지 돌아보면 어느 하나도 놓치기 아까운 시간과 기회들이었다. 현실과 학문의 조율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교수님들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 같다.

무엇보다 아산나눔재단 운영진의 아름다운 미소와 한결 같던 친절은 나에게 또 하나의 리더십을 생각하게 하는 신선한 경험 이었다.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를, 그리고 나를 챙기는 것조차 낯설어 있지 않았던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때로는 수업과 현실의 괴리에서 '내가 뭘하겠다고'라는 패배감에 괴로운 적도 많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가을과 겨울이 어김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남았다. 또 다시 봄이다.





## 2015년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박정아 남동구노인복지관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내 가슴에 들어오다

처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동안 관심을 가져오던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원서를 작성해 나갔다. 지난 10년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해왔던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또 목말라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낸 것이 통했는지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뛸 듯이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 내가 목표한 것들, 그리고 되돌아보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며 스스로 몇 가지 목표를 정했다. 사회복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내·외면적인 성찰의기회를 갖는 것, 나와 동기들의 모습에서 리더로서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내고 나만의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것, 다양한 비영리조직에 종사하는 동기들을 통해 타 기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치와 윤리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조직의 리더'로 성장하고 싶었다. 지금되돌아보면, 네 가지 목표들은 스스로 만족할 만큼 달성된 것 같다.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것을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기도 했다. 그래서 더 깊게 시도해보고 싶은 분야갸 생기기도했고, 나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교수님들, 동기들과 더 가깝게 관계를 갖고 어울리고 싶었는데 생각만큼은 잘 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만남을 가질 기회가 충분할 것이라는 기대로 아쉬움을 달래며, 개인적으로 찾아가 뵙고 못다한 인연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 '리더십'이라 쓰고 '나를 단련해가는 과정'이라 읽는다

리더십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답은 내 안에 있고, 그 답 또한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나름의 결론에 이르렀다. 나를 잘 알기 위해 나를 단련시키고 성찰해 나가는 과정은 끝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리더로서 중요한 면모라는 것을 깨우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Thanks to

이 곳에 와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를 위해 일하는 분들의 모습이었다.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아산나눔재단 운영진을 보면서 나도 현장에서 저런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써준 아산나눔재단에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시작부터 끝까지 '가치봄' 이름처럼 가치있는 일을 하기 위해 한 곳을 바라보며 달려온 우리 조원들에게도 인사를 전하며 지난 여정을 마무리한다.

"여러분들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 잘했다



신태중 함께하는시민행동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의 비영리단체에서만 활동해왔다. 참 오랜시간이었다. 세상은 바뀌어가고 활동은 지지부진했다. 답답했고 돌파구가 필요했다. 좀 더 공부하면 나을 거란 생각에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다른 세계를 접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뭔가를 더 알아가고 깨우쳐간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여전히 답답함은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아산나눔재단의 비영리단체 활동가를 위한 교육과정을 우연히 접했다. 배운김에 마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원과 또 다른 과정일 것이라 생각했고, 지금의 나에게 더 필요한 과정일 것이라 생각했다.

입학식 후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때 정진홍 전 이사장님의 첫 강의를 듣고 아카데미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비영리단체는 자기가 주장한 바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정의가 죽었다'고 여긴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그랬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다른 사람,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방식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등에서의 일부 수업은 대학원에서 접했던 것이라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들었던 내용을 또 듣는 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비영리 단체가 고민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니, 대학원 수업 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비영리조직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을 듣고 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헌신하는 비영리조직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날 수 있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슷한 생각과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만 교류를 했다. 생각은 굳어가고, 새로운 경험은 부족했다.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며, 28명의 다른 분야의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사회변화에 대한 그들의 열망과 진정성을 느꼈다. 그리고 닫혔던 생각이 점차 열리며 마음 속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이들은 나에게 큰 힘이었고 큰 배움이었다.

6개월 과정동안 늘 헌신해왔던 운영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 마음 씀씀이, 전문적인 진행능력, 그리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배려심에 나는 어떻게 활동해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같다.

지난 6개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길 참 잘했다!



### 시간과의 전쟁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비영리 분야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과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늘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최근에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이해당사자에게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내가 일하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정부가 설립한 중앙기관으로 전국의 245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따라서 중앙센터의 정책적 판단과 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수는 약 1400 여 명인데 이들의 전문성이 곧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역량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실무자들의 직무능력을 성장시키고 자원봉사전문가로서의 가치와 소양을 함양하는 것 또한 우리 기관의 중요한 사명이자 사업분야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영향력이 큰 조직 실무책임자의 위치가 주는 압박감과 현장에서의 리더십 발휘 요구가 점점 강해지면서 나의 고민을 함께 풀어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지원하던 시기는 개인적으로나 기관 입장에서 볼 때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수험생 엄마이기도 했고, 기관 내부적으로는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여서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런 고민을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참여할 수 있었다.

아카데미 과정 중 나에게 가장 아픈 시간은 리더십 모듈이었다. 민낯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했다.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것은 내가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고, 그중에 나와 불편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었다. 미안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캡스톤은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만든 수업이었다. 시작부터 어떻게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불편한 시간이었고, 평소 일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일하던 나에게는 사람중심의 방식을 습득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웠다. 불편한 만큼 배움도 큰 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은 전쟁 같은 시간이었다. 캡스톤 1차 발표가 있던 날, 수험생 아들이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었고, 기관은 위탁법인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기관장 공석으로 기관장 대행업무까지 감당해야 했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4기 수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함께한 동료들과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내고 싶다. 어떤 색깔일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아산나눔재단 운영진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른다.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다. 매 순간 세심한 배려는 잊지 못할 것 같다.



## 얼마나 많은 눈을 빛나게 할 것인가



윤영미 한국자원봉사문화

### 고민하며 섬기는 아산나눔재단

팀 구성을 위한 연령대별 컵 쌓기에서 꼴등을 했다. 센스 없거나 덤벙대는 사람들끼리 한 팀을 이루겠구나 싶은 찰나, 1등부터 꼴등까지 섞어 팀을 엮는 묘미를 보인다. 전 과정의 매무새를 끊임없이 매만지기에 '그래! 교육을 진행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경험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다.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정말여기까지 고려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이 탄탄하다. 그만큼나의 몫인 과제량과 책임감도 엄청나다. 그것도 '일과 사람'이라는 두 가지측면에서. 하지만 겪다 보면 이내 다음에는 어떤 과업을 해결해야 하나기대도 된다. 정기적인 자극 속에서 짜릿함 마저 느낀다.

### 컵 쌓기로 시작된 최고의 팀워크, 4기충전 유니킴

잘 짜인 6명이 팀워크를 이루어 멋지게 해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시각의 충돌을 보았고, 이것은 내 일상과 동료 안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각자 시각의 틈을 메꾸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개방성과 다양성, 경험을 갖추는 것이 리더에게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를 깨달았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합의 창희', '정리 혜란', '압박지훈', '스파크 요왕', '넉넉 해복'의 팀워크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부대꼈지만 이겨냈고, 힘들었지만 응원했다.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 느끼고 관찰하고 품으며 함께 하는 사람을 껴안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 캡스톤, 일과 사람에 대한 이중적 고찰

비교적 쉽게 흥미를 잃는 나지만 캡스톤 수업은 달랐다. 숨 쉬는 타이밍까지 함께 맞춰가는 것처럼 단 1초도 지루한 틈을 주지 않았다. 다양한 질문이 있는 수업과 팀 프로젝트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다. 아카데미 교육은 그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자신을 깨는 과정인 깨우침이 있어야 하고, 몸에 배는 배움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아카데미를 통해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이라는 고민을 처음 해보았고, 나의 장단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리더십들은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깨우침과 배움으로 리더십을 관찰한 시간

내가 얻은 깨달음과 배움은 '리더는 가치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하고,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직원, 팀, 조직 단위의 온도를 느끼고, 패턴을 분석하여 새로운 역동을 만들고, 각자의 시각을 객관화하여 틀을 깨고 나오도록 한다. 즉,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게 한다. 이 과정이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이며, 조직원을 거대한 시스템 안의 부품이 아니라 한 명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많은 눈을 빛나게 할 것인가?'의 관건이 된다. 리더는 그들의 과정과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치가 스스로 생성되게 한다.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나의 몫은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이다.

### 시민사회의 10년 후를 매핑 해본다

아카데미 동기들의 정겹고 촘촘한 그물망이 보인다.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민사회 리더들이 함께 네트워크로 어우러지는 것이 보인다. 아산나눔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두에게 자기 성장의 시간을 갖기위해 고군분투한 4기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응원을 전하고 싶다. 우리를 위해고생한 아카데미 운영진, 비영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는 따뜻한 교수진, 동기라는 이름만으로도 반가운 이들을 자주 못 볼 생각에 벌써 아쉬움이앞선다. 그야말로 정이 붙었다. 이 사람들을 알아가기에 6개월은 정말이지터무니없이 짧았다.





### '채움의 배움'이 아닌 '비움의 성찰'



윤요왕 사회적협동조합 춘천별빛산골교육센터

비영리단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얻었다. 하지만 내내 자신을 쏟아내는 것 같은 시간이기도 했다.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바쁜 일상과 쏟아지는 과제들을 허겁지겁 치루어내기 바빴을 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경험도 쌓이고 한 단체를 이끌어가게 되면서 후배들에게 단단한 조직과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공허했다. 더는 저 밑에서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지식도, 경험도 없이 점점 소진되어 가는 나를 채우고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게 되었다. 사는 곳도 지방이고 나이도 적지 않은데, 새로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안 어울리는 것만 같아 쑥스럽기도 하여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 최종합격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가면서까지도 과연 잘한 결정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도 의문 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헌신적인 운영진과 좋은 교수님들을 뵈면서 흐뭇했다. 전략모듈로 시작한 아카데미의 수업은 하루하루가 더해 갈수록 새로움과 짜릿함의 연속이었다. 어려운 용어도 있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듣고 생각하고 적용해보는 과정에서 내 것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의 게으름도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좋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리는 과정에서 호기심과 함께 불편함도 있었음을 고백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단순하게 수업을 받고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힘든 수업과 과제, 녹록치 않은 토론과 고민 속에서 어느 순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채우는 배움'이 아닌 '비우는 성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실용적 학문에 그치지 않고 인문학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교수님들의 해박한 이론과 실전에서 우러난 가르침에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지만, 결국 비우고 성찰해야만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혁신을 통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이든 일이든 결국 기존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높이와 거리에서 바라봐야 함을 배웠다.

'프론티어'라는 말은 경계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다. 나는 평생을 운동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노자는 운동은 경계의 중첩에서 발생한다고 얘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밝은(明)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만나서 내 인생의 또 하나의 경계에 서 있을 수 있었음을 마음 속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게 될 것 같다. 함께한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 40 / 41

## 가을바람과 봄바람 사이에서



윤해복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가을바람이 불었다. 사그라드는 삶에 대한 열정, 일과 사람에 대한 미지근함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 마냥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그 바람을 타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수강한지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아카데미 수강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루 900킬로미터와 8시간의 이동 거리, 그렇게 주 2회씩 6개월을 다녔으니 그 거리가 지구 한바퀴(약 40,000킬로미터)를 훌쩍 넘은 45,000킬로미터가 되었다. 이렇게 먼 거리와 긴 시간을 들여 나는 얼마만큼의 리더십을 알게되었는지 자문해본다.

낯선 지리, 낯선 사람, 낯선 내용과 낯선 용어 덕분에 긴장하고 땀이 나고, 불편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점차 또렷해진다. 리더십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 '사람'과 '일'을 지혜롭게 잘 품는 역량을 키운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낯섦이 대게는 약이 되었지만 방해가 되는 숙제임을 알게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리더십 과정은 팀원들과의 만남에 깊이를 더하게 하는 해외연구조사였다. '일'과 '사람'에 대한 깊이를 더하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 리더는 올바른 방향 설정과 매사의 갈림길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하고, 모르는 것, 실수하는 것, 그리고 서툰 것은 죄가 아니기에 따뜻한 시선으로 더 많이 품고 이해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덧 봄바람이 불어온다. 이러한 귀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아산나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밤낮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준 운영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최고의 강의로 호기심과 지적욕구를 자극해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이 과정을 묵묵히 함께 걸어온 4기 동료들, 그들의 앞날에 리더로서의 삶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 상황을 품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이금복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내 안의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부푼 꿈을 안고 장기기증운동과 함께한 지 13년째 되던 2015년, 사업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면서 더 많은 생각과 고민, 책임감으로 버거워하고있었다. 이전 기수를 수료한 직장 동료의 추천과 직원들의 응원 속에서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4기에 도전했다.

"부족한 경험과 지혜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욱 혁신적이고 열정적이며 주위를 살피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첫 만남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카데미 과정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위더스' 팀원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같은 고민으로 울고 웃던 동기들, 그리고 깊은 깨우침을 주셨던 교수님들과의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캡스톤 프로젝트와 해외방문연구조사는 나를 많이 성숙하게 해 주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더욱 크다. 조금 더 집중하지 못했던 것, 조금 더 즐기며 하지 못했던 것, 조금 더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게 되묻는다. 처음 그 마음처럼 나는 더욱 멋진 리더로 성장해 있는가?

여러가지 이유로 참으로 힘들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알 것 같다. 리더십의 본질은 많은 형태의 저항들, 상충되는 것을 재결합하고 올바른 수준으로 끌고가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을.



### 감사합니다

내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설렘이었고 달콤쌉싸름한 희로애락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안의 부족한 경험과 지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선물을 안겨준 고마운 곳이다.

6개월의 시간동안 배움의 사고를 넓혀주신 교수님들과 섬김의 본이 되어준 언제나 멋진 운영진, 그리고 모든 일정을 결석 한 번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직장 동료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직장 업무와 아카데미 공부를 병행하면서 시간과 체력의 한계로 더욱 집안 일을 신경쓰지 못했지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응원해 주었던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이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린다.



## End가 아닌 And



이지훈 한국컴패션

벌써 아쉬워지고 그리워하는 건 왜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지원서를 내고 2차에 추천서와 프로젝트 계획서 등 자료들을 준비하던 때가 많이 생각난다. 인터뷰를 마친 후 합격 통보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기대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바빴던 시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마무리하는 지금 다시 돌이켜 보니 가장 적절한 시기에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고한 나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 오리엔테이션에서 마음 속에 새겼던 문구이다. 지난 6개월간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얼마만큼 성장했고,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매우 궁금하다. 난 정말 성장했고 또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일까.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마주하면서, 일과 사람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 때마다 교육을 통해 배우고 깨달았던 것을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때마침 부서도 이동하게 되었으니 새로운 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부분에서 일과 사람 사이의 전략적 리더십을 잘 실천해볼 것이다.





배울수록, 적용해 볼수록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할수록 리더십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해결책이 보일 것 같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려고 노력해 보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알고 이해하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각 모듈별로 수업을 통해 배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수고하는 28명의 동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다. 그 중 최강 유니킴 4조의 형님, 누님, 동생님 한분 한분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참 고맙다. 정말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축복의 통로인 선생님들이셨다.

멘토 선생님, 아산나눔재단 운영진, 그리고 교수님들을 뵈며 '어디서 이러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 순간 세심한 배려와 놀라운 이벤트까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운영진과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참 많이 생각나며 보고 싶을 것 같다.

"쉽지만은 않았지만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4조 그리고 4기! 더 나아가 아산 프론티어 아키데미의 모든 동문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던 시간



이혜란 아름다운커피

#### 4년차 비영리기관 담당자에게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주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공고는 1기 모집 때 처음 보았다. 비영리기관 경력 7년 이상이라는 아카데미 수강 자격요건을 보았을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다. 비영리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통의 강의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생각해 볼 때도 참 특이하고 특별했다. 이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더 필요했다. 다른 관점으로 보니, 이 아카데미는 비영리기관에서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을 위한 선물같은 보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영리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하나뿐인 프로그램. 그날부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도 받고 싶은 선물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하반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강 자격요건이 비영리기관 경력 5년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횡재인가 싶어 얼른 지원했다. 2015년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던 시기, 에너지가 되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일을 하는 순간순간은 참으로 재미있지만,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싶은가와 같은 근본적인 고민과 직면해야 했다.

### 지원부터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간을 주다

서류전형부터 에세이 작성, 면접까지 참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지원할 때부터 시작되었던게 아닌가 싶다. 서류를 내기 위해 내 경력을 정리하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며 내 자신과 나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었다. 면접 이후 '남이 던진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 망했구나!'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나 자신 스스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참 오래 쉰 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아카데미는 도전한 순간부터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간이었다.

### 질문은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알게 해주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모듈 별 강의 그리고 캡스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업무도 함께 병행하는 동안 하루하루가 참 촘촘하다 싶었다. 특히 아카데미 수업이 있는 날은 하루가 24시간 이상인 것만 같았다. 업무프로젝트도 2~3개 이상 돌아가고 수업에 과제까지 있을 때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고마움과 행복감은 저멀리 사라지고 '아, 난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세 가지를 얻었다. 나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쓰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 BEST 3 목록,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그들이 먼저 겪은 경험의 연륜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앞으로 내가 세운 계획이 성공할지실패할지는 모르겠다. 그럼 어떤가, 난 이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았고 앞으로 나갈 에너지를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은 충분히 값지고 소중했다.





## 나는 변화되었는가



임은용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가 이루고 싶은 2015년의 목표는 '변화'였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었고,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방향성이자 하고자 하는 일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한 나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도전했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작한 아카데미는 녹록하지 않은 과정이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적응하기에도 힘들었고 한 번씩 수업장소가 변경되면 헤매기 일쑤였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 과정 때문에 기관장님과의 사이가 꽤나 소원해 졌다는 것이었다. 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탓에 잠을 줄이며 엄마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몹시 바쁘게 지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제로 주어지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업시간이 기대되었다. 다양한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대단한 열정으로부터 그 에너지들을 고스란히 전달받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강의와는 다른 형태의 수업에서 심장박동이 높아지곤 했다.

특히, 영리기업에 대한 오해와 비영리기관에 대한 나태를 제 삼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영리기업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나누고자 하는 과정에서 선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비영리기관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기에 결과라고 내놓기에는 미미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나 또한 평소에 동료들에게 행사를 위한 행사, 실적을 위한 업무, 의미없는 프로그램들은 지양하자고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나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비영리기관이라는 이름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것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기관으로 돌아와서 나는 동료들과 함께 '동료들과 나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전은 누구의 것인가?'와 같은 물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중간관리자로서의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에 대해 고민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과감히 실행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캡스톤 수업은 정말 힘들었다.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직장에서 꽤나 독단적으로 일을 해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변화했는가? 답은 '그렇다'이다. 커다란 변화가 아닐지라도, 작은 돌맹이가 만든 호수 물결처럼 작은 변화의 파급효과가 멀리 퍼질 것이라고 믿는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도 나와 같은 수료생들이 만드는 작은 변화를 통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개월의 오랜 시간동안 지지해 준 가족과 동료,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진과 교수님들, 아산나눔재단에 감사함을 전한다.





# 다시 출발



임혜선 아름다운가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생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번 4기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2회, 6개월이라는 교육 기간은 나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고, 해외연구조사까지 진행되는 전 과정을 잘 해낼 수 있을지걱정이 많았다. '열심히 해야지'하고 여러 번 다시 마음을 추스렸지만, 과연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 아쉽기도 하다. 끝나는 날이 올까 싶던시간이 어느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카데미의 과정은 이론과 실제를 함께 볼 수 있게 진행되었다. 리더십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서 "실제 경험은 각자에게 많을 것이니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품새를 익힌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까지 느껴지는 이론부터 공감가는 실제적인 이야기에 '맞아맞아 나도 그래'하고 맞장구를 치기도 하였다. 외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적지 않게 참여해 보았으나 아카데미만큼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진행된 과정은 손에 꼽기 힘든 것 같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6명의 조원들이 주제 선정부터 결과물 도출까지 책임져야 하는 캡스톤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갈등을 두려워하며 적당히 쉬운 방법을 택하고 타협하는 '나'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 나의 모습이 부담스러워 자꾸 회피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인생은 후회할 만큼 길다. 후회는 자기성찰을 하는 자의 것이다. 후회를 하면 다시 추스릴 기회도 생긴다. 다시 나에게 동일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정진홍 전 이사장님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체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주체적으로 잘 활용했는가 돌아보면 후회가 많이 생긴다. 하지만 아쉬워 하지만 말고 그 후회를 디딤삼아 다시 출발해야겠다. 아낌없이 나눠주신 교수님들, 시종일관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던 아산나눔재단 운영진,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애쓴 우리 조워들과 4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해진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한 것만으로도 내겐 큰 도전이었다. 단순히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허가를 받고 서류와 면접전형에서 선발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함께 지원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이유로 포기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님을 느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진홍 전 이사장님은 "리더십이란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산 골짜기에서 외줄을 타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어려운 순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외줄을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양팔의 밸런스, 정확한 목표, 그리고 몰입과 집중이라는 무기라고 하셨다.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진정을 담아 입학하는 우리에게 리더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말을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지금에서야 공감하게 되었다.

주마등처럼 지난 6개월의 과정이 스쳐간다. 입학식 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한 사람씩 입학 포부를 발표하던 것, 수업시간의 각종 에피소드, 깊고 넓은 관계망을 확인했던 순간들, 캡스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또 디브리핑 하면서 성장을 가져왔던 환희의 순간 등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기억들이 많다. 사실 아카데미 과정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수업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독서와 리포트 과제도 참 많았다. 충실히 과제를 수행하기엔 일상이 너무 벅찼다. 당장 다음 수업은 다가오는데 집안일이며 직장업무는 왜 이리 밀려오는지, 시간은 없고 할 일도 너무 많았다.

하지만 아카데미는 참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다. 전략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나에게 전략이라는 복잡미묘한 매력에 푹 빠지게 했던 김태영 교수님의 수업, 비영리 조직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 성과에 대해 명쾌한 수업을 해주셨던 이봉주 교수님, 수많은 책으로 수업을 준비해주시고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업해주신 방대욱 교수님,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일깨워주신 인적자원 수업의 문형구, 김광현, 김영규 교수님, 마케팅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신 현용진 교수님, 사회혁신에 대해 넓은 시각으로 현장에 참여하게 만들어주신 이재열, 이원재 교수님, 비영리 분야 회계와 재무관리에 대해 강의해주시고 노래도 감명 깊게 잘 하시는 유영덕, 백승철 교수님, 그리고 누구보다 리더십을 지식이 아닌 실천으로 익힐 수 있도록 힘 써주신 김상범 교수님까지 모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 가르침 속에서 몸소보여주신 리더십과 열정이 내 몸 안에 살아 움직이는 듯 하다.

6개월 동안 우리를 위해 힘써주신 아카데미 운영진을 비롯하여 비영리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산나눔재단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동기들, 특히 33Whydo 조원들은 내가 만난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들 덕분에 서로 배려하고 아끼며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었다.

이제는 아카데미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난이제 외길 낭떠러지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 아마도 아카데미 과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르겠다.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몰입을 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리더로서 실천해야 한다. 내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를 지나 1년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서 말이다.





## 2015년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정명숙 서울특별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2015년, 나는 50살이 되었다. 이런 나의 삶에 새로운 활기를 주고,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아산 프로티어 아카데미 4기에 도전했다. 오랜만에 설렘 반 떨림 반으로 지원했고, '합격' 이라는 가슴 벅찬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최종 선발된 30명의 4기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학식을 하고 1박2일의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다. 24년동안 비영리기관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처음 들어보는 기관의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우물 안에 머물러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이그나이트, 아이스브레이킹, 캡스톤 등 단어들이 생소했고, 활동 중심 수업방식에 또 한번 깊은 압박을 받았다. 오리엔테이션에서 6개월을 함께 할 팀이 만들어 졌다. 어떤 이들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기대된다며 신나하는데, 나는 머리와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 얼음장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가장 약한 약점이 들어나는 것이 두려웠고 '이렇게 6개월을 내가 버티어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자신이 없었다. 아무도 이해 못할 두려움이 담긴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아는 나는 기능적인 일, 숙련의 과정이 필요한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매 순간 기지를 발휘해야 하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야하는 과업에서 나는 매번 좌절을 경험하고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곤 했다. 다시그런 상황에 놓여 다시금 좌절하고 힘들어 할 모습이 두려웠다. 아산나눔재단에 전화해서 4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야할 지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내가 50살에 도전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나에게 물었다. 여기서 포기하고 좌절하면 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나를 향한 응원의 메아리가 나를

다독이고 있었다. '그래 해보는거야!' 그렇게 차근차근 수업을 반복했고, 이제 수료식을 남겨놓고 수기를 쓰고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목적인 리더십, 혁신적 사고와 경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전문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6개월의 학습을 통해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할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다. 그러나 아카데미의 비전인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고 멋진 교수님들의 강의와 캡스톤이라는 실천과목을 통해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조금씩 적용되고, 실천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면접 당시 "당신을 어떤 동물에 비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기억난다. 그때는 '개'라고 이야기 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나는 '소'와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더디지만 되새김질하며 꾸준히 적용하는 나이기에 나는 6개월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나의남은 삶 동안 되새김질하며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함께한 조원과의 만남에서 각기 다른 리더십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 강인한 실천가형 리더를 만났고,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솔선수범 하는 리더를 만났으며, 여유롭고 호탕한 리더, 위기상황에 기지를 발휘하는 리더의 모습을 만나면서 리더의 모습은 결코 한가지로 정의내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도 부족한 나를 끝까지 이끌어준 우리 위더스 조원들에게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표하며, 따뜻한 미소로 한결같이 4기 교육생을 이끌어준 아산나눔재단 운영진 그리고 지난 6개월 함께했던 최고의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



정민용 밀알복지재단

비영리 분야 10년차, 조직이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직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 동기가 되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도전하게 되었다. 2015년 9월, 어색함과 떨림이 가득한 2박 3일간의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교육이 시작됐다. 어디에서도 접해보지 못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들으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6개월의 아카데미 교육은 말 그대로 '혁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중 캡스톤 프로젝트 수업과 리플렉션 메모 과제를 통해 상황 속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에는 불편해서 나서지 못하고 익숙함을 깨지 못했던 상황에서 수업 중에 배웠던 것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나를 보면서 놀랐다. 마지막으로 해외방문연구조사 역시 유익한 경험이었다. 아카데미 과정을 되돌아보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임팩트 있는 연구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가끔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비영리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수고하는 교수님들과 아산나눔재단 운영진을 생각하면 수업시간을 그냥 흘려 버릴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함께한 동기들이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다른 조직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비슷한 고민들을 동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기에 의지할 수 있었다.

아카데미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사람과 책, 그리고 열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나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 가지는 품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아카데미 교육를 통해 비영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가는 나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6개월간 우리들을 섬겨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운영진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 더욱 많은 비영리 차세대 리더를 육성해 주기를 소망한다.





ASAN FRONTIER ACADEMY

### 가을 밤의 선물



최상준 해솔직업사관학교

### 뜻밖의 선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선물'이었다. 그것도 아주 뜻밖의 선물이었다. 그동안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러나 어느새 한 발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 찾아왔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은 나를 설렘과 기대감으로 흥분시켰다.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다시 학생이 된 것처럼 배우자는 각오와 사명으로 불 타 올랐다. '한번 해보는 거다.'

#### 선물을 풀어 보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체 수업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고, 컵 쌓기를 통해 팀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이전에 이러한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에 참여해 본 적이 없던 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선물의 포장을 뜯고 뚜껑을 열어 보니 그 안은 내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낯선 내용물이 들어있는 듯 했다. 수업은 점점 나를 코너로 몰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 다들 알아듣는 용어 조차도 힘들기만 했다. 낯선 선물 앞에서 한계에 봉착해 얼음이 되버린 나를 만나고 말았다.

### 선물을 간직하다

얼음이 되어버린 나를 녹인 것은 다름 아닌 팀원들이었다. 캡스톤을 통해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은 나 자신을 깨는 망치질과도 같았다. 문득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생각이 났다. 전쟁터에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쏟아지는 총알을 뚫고 전진하듯, 팀원들은 나를 기다리고 가르쳐주며 나를 들쳐 엎고 함께 나아갔다. 나에게 그들은 선임병이자 선생님들이었다. 그리고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다짐하자 내 안의 얼음이 녹아 들기 시작했다. 수업을 통해 품새를 배웠다면,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들에게 실전을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선물을 사용하다

아카데미 수업에 참석하면서 내 머릿속에 각 전문 영역에 대한 이론과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다. 비영리 경영를 통해 배운 프로젝트 접근 방식과 조직행동의 중요성, 회계의 전반적인 이해, 마케팅의 접근 방식 그리고 리더십수업을 통한 리더의 자세는 나에게 새로운 눈을 심어 주었다. 특히, 캡스톤수업을 통해 조직의 차별성은 팀워크, 유기적 사고방식, 그리고 다양함을 통해 나타나며, 각기 다른 퍼즐과 같은 조직원이 하나로 융합되어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노력은 평소에 사용하기 꺼려했던 사고와 행동의 근육을 단련해주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서있는 현장에서 사랑하는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 선물을 가슴에 품다

부족했던 라이언 일병이 아카데미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 라이언 상병 즈음은 된 것 같다. 아직 병장이 되기까지 먼 여정이 남았지만, 지난 6개월의 시간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정을 통해 도전하며 성장할 자신이 기대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라는 훌륭한 베이스 캠프와 각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베테랑 교관, 그리고 함께 한 팀원 전우들에게 가슴을 간질이는 선물을 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며 수기를 마친다.







## 고맙습니다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누군가가 그랬다. "우리가 살면서 주체적으로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될까.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환경에 의해 주어진 것이거나 속박된 상태에서 그나마 차악을 고르는 것 뿐이야." 같은 맥락에서 나는 쉼을 원했다. 5년 동안 일에 매몰되어 있다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졌다. 책임이라는 무게 아래에서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내게 아주 약간의 보람과 희열은 주지만, 그건 조직 속에서 주체성이 박탈된 채 돌아가는 나의 모습이지, '나'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일터에서 벗어난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 중하나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였다.

생각보다 다양한 비영리 분야의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아는 '비영리'라고는 청소년, 아동, 교육 분야가 전부였는데, 그보다 더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의 성향은 더 다양했다. 별거 아닌 달걀 던지기 미션 하나에도 궁금한 거 하나하나 물어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툭 하고 의견을 던지는 이도 있고, 말은 톡톡 거리면서도 혼자 주섬주섬 무언가를 하는 이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뭐든 잘 들어주는 이도 있고, 흐르는 강물에 지나가는 나뭇잎으로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도 있었다. 더 재미있는 건 어디 하나비슷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조'라는 조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가고 신뢰해가는 과정이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비영리 경영,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등 많은 수업이 진행되었다. 동시에 기관에서는 무수히 많은 일이 발생했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당장 해결책을 찾느라 급급했는데,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이제까지 나의 사고체계와 행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등을 고민하며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해 보았다. 나아가 조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것인가, 나라는 주체는 다른 주체와 어떻게 어우러지며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데미안은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고,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6개월의 시간이 아무리 좋았다해서 무수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단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머리 언저리의 알을 톡톡 두드려 한 줄기의 빛을 만들어낸 시간이었다. 내게 아카데미 수업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이었다. 그 질문은 이제 'Yes'와 'No'의 문제가 아니라 'How to'로 바뀌었다. 나는 어떻게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다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갈 시간이다.

일본영화 중 〈굿'바이〉라는 작품이 있다. 굿과 바이가 따옴표로 연결된 이유는 굿바이가 Good과 Bye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Bye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안녕'이라는 말 역시, 편안할 안(安), 편안할 녕(寧)을 쓴다. 떠나보내는 이들에게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편안하시라고' 그대의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다.

수업의 매 순간을 진심으로 임해주신 교수님들, 아카데미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준 아카데미 운영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4기, 그리고 애정하는 우리 조 33Whydo, 이전처럼 매 주 만나는 일도, 2박 3일의 워크숍을 함께 하는 일도, 10일의 여행을 함께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디 안녕히, Good, bye 인사를 전한다.





# 학이시습지불역열호 (學而時習之不亦說乎)



홍석준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배움에 대한 설렘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배움이 참 즐거웠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비영리 분야에서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다. 또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캡스톤 수업을 통해서 일과 사람, 그리고 다양한 상황 및 갈등 속의 나의 행동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과 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 연습하게 되었다. 수업을 통해 정해진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캡스톤 과정은 특히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아카데미는 기관에서 지난 10년 동안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나에게 의미가 컸다. 총무팀에서 3년간 전략을 구상했던 경험, 팀원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리더십, 이전 마케팅 부서에서의 경험,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구성 및 발표 등 기관에서 훈련하고 익힌 것들이 모두 아카데미 수업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느꼈을 때, 배움의 설레임과 즐거움은 배가 되었다.

조별로 사회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로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통해 선진국들의 사례를 알아보는 과정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가장 큰 강점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는 영국과 스페인의 방문을 통해서 각 국가들의 선진 프로그램, 자원봉사의 운영, 교육프로그램 진행 활동 등 해외사례를 연구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가와 비교해도 이제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안의 국민의식이나 제도화된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정부와 비열리기관이 아직도 과제가 많다고 느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했지만 매번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반가운 우리 4기 동기, 교수님,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산나눔재단 운영진이 많이 기억날 것이다. 나에게는 한 번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고 배움이었다. 교육기간 동안 치열한 고민과 밤샘 작업, 그리고 다양한 책과 논문과의 싸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가끔 나만 이런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을 어떻게 직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생겼다.

마지막으로 바쁜 업무에서도 매주 화, 목 수업을 듣게 해주신 사무총장님과 부서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팀장이 없어도 업무를 잘수행해 준 팀원들께 감사하다.

"배우고 때때로 익혀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5년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황세희 한림화상재단

화상 경험자들에게 더 나은 일상생활을 창조해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10년. 나에게 생수처럼 다가온 교육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였다. 의료사회복지사이자 비영리 리더로서 갈급함이 있던 시기에 정말 소중하게 다가온,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에 도전하면서 나는 두 가지를 다짐했다. 첫째는 화상 분야 비영리 리더로서 최고의 자질을 갖추자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몸담고 있는 한림화상재단을 통하여 화상 경험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감사하게도 귀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에 필요한 품새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하여 화상 경험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플랫폼 구축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그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단축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도 하였다.

아카데미의 전 과정이 나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고, 매 순간이 감동이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전략 수업은 지금까지 전략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했던 나에게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주었고, 리더십 모듈은 리더로서 그리고 팔로워로서의 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되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마이클 포터 교수의 논문 11종과 리더십 추천도서 40권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이 끝나더라도 한동안 나를 허전하지 않게 할 것 같다. 잊을 수 없는 캡스톤 모듈 수업은 전략적 리더십 실천의 진수를 가르쳐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수업 시간의 무게는 상당했지만 그만큼 남는 것도 참 많았다.



무엇보다 리플렉션 메모 과제와 캡스톤 프로젝트는 일과 사람 측면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같은 분야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할 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팀 논의시간에 떠올릴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실행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비논리적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갈등의 온도를 어떻게 맞추어가야하는지에 대한 실습은 나를 크게 성장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화상 관련 기관방문을 통한조사연구는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남겼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하여 비영리 분야의 차세대 리더가 되고 싶다. 교육과정을 통해 차가운 머리로 현실을 직시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 역량을 갖추고, 미래에 대한 혁신과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 (2015년 7월 1일 제출했던 에세이 中)

이 모든 과정을 선물해주신 아산나눔재단 운영진과 최고의 강의로 4기를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좋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림화상재단 윤현숙 이사장님과 부서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6 개월을 함께한 아카데미 동기들, 그리고 너무나 완벽했던 33Whydo 팀원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인사를 전한다.































70 / 71



THE ASAN NANUM FOUNDATION





ASAN FRONTIER ACADEMY



###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AsanNanum

### 블로그

blog.naver.com/asan\_nanum

